

전남도 '엔터리 조직개편' 후유증 심각

지원부서 늘리려 일자리 만드는 산단조성팀 폐지
특별 업무 편차 커 다시 조직진단 착수 결과 주목

전남도가민선7기 출범 직후 지원부서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단조성팀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뒤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논의단계에서부터 불거진 내부 의견수렴 부족을 시작으로 업무량 편중, 효율

성 저하 등 애초 우려들이 현실화되면서 '엔터리 조직개편' 이었다는 내부의 쓴 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본청 10실국, 50과·19직속기관, 2사업본부, 7사업소 체제에서 11실국, 52과·19직속기관, 2사업본부, 7사업소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임시조직이던 일자리정책실을 일자리정책본부로 직제화했고, '인구청년정책관'을 준 국장급으로 신설해 인구감소, 귀농·귀어·귀촌인 지원 등을 담당하게 했다. 또 분야별 지역 인재 양성을 주도할 '희망인재육성교', 자연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섬해양정책과'와 '산림휴양과' 등도 신설했다. 아울러 경제과학국은 '경제에너지국'으로, '농림축산식품국'은 '농축산식품국', 건설도시국은 '건설교통국'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기술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전남도는 당시 일자리 만들기과 인구회복, 도민 우선주의 등 김영록 지사의 도정 방침을 반영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지만, 개편을 위한 '행정기구설치 조례'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여러 논란이 불거졌다. 조직 통폐합에 따른 소수직렬 축소 등 해당부서와 직렬 간 의견수렴 부족이 대두됐고, 현원 조정에 따른 인사상 불이

의 여부 등을 두고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논란은 조직개편 단행 5개월여가 지난 현재도 이어져 일부 부서의 업무량 편중 등 효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건설도시과 산단지역개발팀과 정책기획관실 공모사업지원팀·균형발전팀 등이 대표적이다. 산단지역개발팀은 도내 100여개 넘는 산단 관리와 건설공사 법령 등을 총괄하던 산단조성팀이 폐지되고 지역개발팀과 통합돼 심각한 업무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다. 반면, 신설된 공모사업지원팀은 공모사업 대응전략 수립 등 일선 부서와 다를 게 없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육상육'이란 평가가 나온다. 여러 우려들이 현실화되자 기획조정실 지원 부서를 늘리기 위해 사업 집행

부서를 줄이는 등 조직개편을 위해 진행된 15차례 전문가 의견수렴도 구색맞추기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조직개편의 방침을 일자리 만들기에 찍으면서도 일자리 창출의 최일선인 산단조성과 관리를 도외시하는 제멋대로 도정운영의 대표사례라는 비판마저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이달말부터 내년 4월까지 이뤄질 조직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각 부서별, 특별 사무량 조사와 정량·정성 평가, 기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진단결과와 행정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과부하가 걸리는 부서의 인원보강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 하남산단 ICT·첨단단지로

2026년까지 438억 재생 투입

노후산단인 광주 하남산단이 첨단산업단지로서 새롭게 태어난다. 제조업과 금속산업 위주의 공해유발 업종 대신 정보통신기술이나 지식산업 위주의 첨단산업으로 업종을 재배치하고 노후한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남산단 재생시행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는 17일 하남산단 관리공단 회의실, 오는 26일 장성군 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연다.

광주 광산구 장덕·오덕·안청·도전동 일원에 1983년 준공된 하남산단은 현재 594만4,000㎡의 부지에 산업시설 449만7,000㎡, 지원시설 25만1,000㎡, 공공시설 82만2,000㎡, 녹지구역 37만3,000㎡ 등으로 구성돼 있다.

99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액이 12조2천526억원으로 광주 산단 전체의 53.1%를 차지한다.

수출액도 41억2,100만달러(광주시의 54.3%), 고용인구 2만6,430명에 이르고 있다. 입주 업종은 조립금속업종이 39.3%, 화학업종이 13.2%, 식품



사랑의 동전모금함 연말을 맞아 1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흥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타모자를 쓴 복지센터 직원들과 어린이집 원생들이 관내 경로당에 전달할 예정인 '사랑의 동전모금함'을 개봉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관련 업종이 4.6% 등의 순이다. 하남산단은 준공이 35년이 지나면서 생산설비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시는 2015년 7월 정부 공모에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자 올해 1월부터 하남산단의 재생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재생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 시는

국비 180억원, 시비 249억원, 민자 9억원 등 모두 438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3단계로 나눠 하남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2016~2019년)에 300억원, 2단계(2020~2023년)에 100억원, 3단계(2024~2026년)에 3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특히 노후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고 편리한 근로 환경을 조

성할 계획이다. 구조 고도화 사업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정보통신기술(ICT)·지식산업 등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도록 추진한다. 의료정밀·과학기계, 시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무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한다. /황애란 기자

지역 고용률 반짝 회복...질은 '푹'

36시간 미만 취업자 6000명증가...자영업 급감

광주·전남지역 고용지표가 반짝 상승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36시간 미만' 단기 근무에 그쳐, 지역 내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 취업자는 75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명(1.3%) 증가했다. 고용률 또한 59.9%로 전년 대비 0.7% 상승했다.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2만명 늘어났다. 건설업에서도 3,000명이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증가 요인은 정부의 공공 일자리 대책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은 도소매·숙박 음식점업은 1만5,000명 감소하며 전년 대비 6.1% 하락했다. 전기·금융업은 3,000명 감소했다.

정규직 또는 상용직을 의미하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감소하고 단기 근

무 취업자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광주 지역 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6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000명(-0.2%) 감소했다. 이에 반해 지난달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2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6,000명(5.3%) 늘어났다. 전체 취업자 평균 취업시간도 41시간으로 전년 대비 1.3시간 줄었다.

지난 달 광주지역 실업자는 2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늘어났다. 실업을 또한 전년 대비 0.3%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전 월과 비교해서는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취업자는 97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000명 늘었다. 고용률 또한 63.7%로 전년 대비 0.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산업별 취업자는 전년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1만5,000명(4.7%), 건설업 1만명(13.1%) 등에서 증가했다.

/송수영 기자

전남매일 연중 캠페인 >>>
지역 기업을 살립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반짝이는 사람과 빛나는 기업이 모이는 **광주**

무한가능성을 열어가는 도시,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최적의 투자환경에서 최상의 투자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01 차별화된 투자인센티브 지원
- 02 최첨단 도시형 산업단지 제공
- 03 에너지, 자동차 등 주력산업 집중 육성
- 04 편리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 05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지원

광주광역시 투자통상과 062) 613-4061~4